

## 영화롭던 강수연, 언제나 영화롭기를 - 뒤늦게 다시 써보는 부고

한국일보 

라재기 기자



2023년 5월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강수연 1주기 추모전 '강수연, 오랫동안 영화롭게' 개막식에서 김동호(가운데)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2011년 3월 초다. 강수연(1966~2022)을 만났다. 처음이었다.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 개봉을 앞두고서다. 11년 지속될 가느다란 인연의 시작이었다.

대중에게 각인된 이미지와는 달랐다. 차갑고 매섭고 도도하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그는 의외로 소탈했고, 다감했다. 답변은 질문의 부족함을 채워줄 정도로 충실했다.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1987)' 이후 24년 만에 연기호흡을 맞춘 동갑내기 배우 박중훈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나 강수연을 다시 대면할 수 있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축하연 자리였다. 인터뷰 릴레이 속에서 여러 명과 딱 한번 마주한 기자를 기억하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말을 붙여볼까 고민할 때 그가 먼저 다가왔다. 이름까지 불러줬다. 연기 활동이 뜸해서 아는 기자들이 많지 않다며 종종 보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스타였고, 성인이 돼서

는 ‘월드스타’ 라는 수식이 붙은 이답지 않았다.

### 한국 영화 침체기의 큰 별

강수연은 영예를 누렸으면서도 불우했던 스타다. 그는 한국 영화사에 굵은 글씨로 기록될 성취를 남겼으나 외로이 빛나는 별이었다.

강수연은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1987)’와 ‘아제아제바라아제(1989)’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각각 여자배우상을 수상했다. 한국 영화 최초였다. 1980년대 한국 영화는 세계 영화계에서 변방으로 여겨졌다. 우수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 자체가 극히 드물던 시절이었다. 국내에는 국제영화제가 아예 없던 시기,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베니스영화제, 공산권 대표 영화제였던 모스크바영화제에서 트로피를 안았다는 건 큰 사건이었다. 임 감독과 강수연의 역량이 빛어낸 결과였다.

강수연이 맹활약하던 시절 한국 영화계는 침체기라는 수식이 따르던 시절이다. 한국 영화계는 영세했고, 한국 영화는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기 일쑤였다. 1990년대 중·후반 중흥의 발판을 마련한 시기, 강수연의 이력은 조금씩 하향곡선을 그렸

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영화가 산업화의 본궤도에 오르고 천만 관객 영화가 잇달아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강수연의 설 자리는 급속히 좁아졌다.

강수연은 ‘한반도(2006)’ 이후 영화 출연이 사실상 중단됐다. ‘검은 땅의 소녀와(2007)’ 에도 얼굴을 비추나 특별출연이었다. ‘한반도’ 에서도 그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서클(2003)’ 이후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는 없었다. ‘달빛 길어올리기’ 는 8년 만에 역할다운 역할을 맡은 영화였다. 하지만 관객은 5만7000명 가량에 불과했다. 한국 영화사의 큰 별이었음에도 젊은 층이 그의 출연작들과 친숙하지 않은 이유다.

### 너무 이른 이별

2010년대 중반 강수연은 문화행정으로 주 활동영역을 옮겼다. 부산국제영화제 초창기부터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 2015년 집행위원장이 됐다. 부산영화제는 당시 위태로웠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다이빙벨’ 상영이 문제가 돼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던 시기였다. 영화계는 부산영화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뜻을 모았다. 공동 집행위원장으로 영화계 여러 유명인사가 검토됐다. 결론은 ‘강수연 등판’ 이었다.



2023년 5월8일 오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영화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상영이 끝난 후 배우 박중훈이 강수연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고 영화계 신망이 두터운데다 부산영화제 속사정도 잘 아는 인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영화계에 따르면 다른 유명인사와 마찬가지로 강수연은 처음에는 위원장직을 고사했다. 배우를 천직으로 여기고 있었고, 연기에 대한 욕심이 여전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강수연은 영화계 사람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못했다. 난파 위기에 놓은 부산영화제를 구하기 위한 선장으로 나섰다. 강수연다운 결단이었다.

하지만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일은 2017년 내홍을 겪으며 불명예로 퇴진으로 끝이 났다. 자존심 강했던 강수연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다.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 영화계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껴 극소수 지인만 가끔 만나 통음(通音)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는 했다. 은둔생활은 2021년까지 이어졌다.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정이’ 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되고 서야 대외활동을 재개했다. 같은 해 10월22일엔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러 영화계 인사 중 마지막으로 레드카펫



2023년 5월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강수연 1주기 추모전 '강수연, 오랫동안 영화롭게' 개막식에서 배우 박중훈(왼쪽)과 안성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2023년 5월7일 오후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열린 강수연 1주기 추모전 '강수연, 오랫동안 영화롭게' 개막식에서 가수 김현철(왼쪽)과 배우 공성하가 추모 공연을 하고 있다.(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을 밟은 그는 환한 미소로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4년 만에 대중에게 선보인 모습이었고, 마지막 공식 행사 참석이었다.

강수연은 2022년 5월5일 갑작스레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생명의 불꽃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수연의 오랜 친구인 모 영화인은 전화를 걸어 '강수연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눈물 섞인 뉘즈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몰라주듯 이틀 뒤인 5월7일 강수연은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도 이르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 수많은 미담을 남기고

서울 강남구 한 장례식장에 차려진 영안실 안팎에서 많은 영화인을 만났다. 대부분 고인과 사연을 나눈 이들이었다. 사연은 미담으로 연결됐다.

한 유명 영화제작자는 제작 일에 뛰어 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사채까지 손을 대며 영화를 어렵게 제작을 했는데 제작비가 부족했다고 한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 아반도주하겠다는 생각에 짐까지 다 싸놓을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제작비

로 수천 만원이 당장 필요해 고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다. 고인은 어디에 쓰러는지, 언제 갚을 지에 대해 묻지 않고, 바로 송금했다. 영화는 예상보다 더 크게 흥행했고, 해당 제작자는 2000년대 한국 영화를 선도하는 주요 제작자로 급부상했다.

한 다큐멘터리영화 감독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한국 영화 관련 영화제를 열게 되면서 고인을 초청했다. 고인은 항공료를 자신이 부담하고 미국을 찾았다. 인연은

감독이 귀국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고인은 감독을 종종 불러 밥을 사며 연출 데뷔를 독려하고는 했다. 매년 헤어지기 전에 “택시 타고 가라”며 식탁 밑으로 현금을 주었다고는 한다. 매사 담대하고 화끈했던 고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하지만 정작 고인은 자기 삶에는 엄격했다고 한다. 검소하고 소탈하게 생활했다.

엄용훈 삼거리픽처스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고인과 맺은 인연을 소개했다. 창덕궁 맞은 편 쪽 동네에 함께 살았는데 학교 동창은 아니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등

곳길마다 마주치다 친구가 됐다. 엄 대표는 당시 전 국민이 아는 스타였던 고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학교를 가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때리며 “너, 나 알지? 왜 아는 척 안 해?”라고 말을 걸었다. 고인이었다. 세 번쯤 비슷한 상황을 거치며 두 사람은 친구가 됐다. 매일 등곳길마다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고, 성인이 돼 엄 대표가 영화계에 입문한 후에도 둘은 종종 보게 됐다. 매사 적극적이고 사교적이었던 고인다운 어린 시절 일화다.

### 여전한 아쉬움,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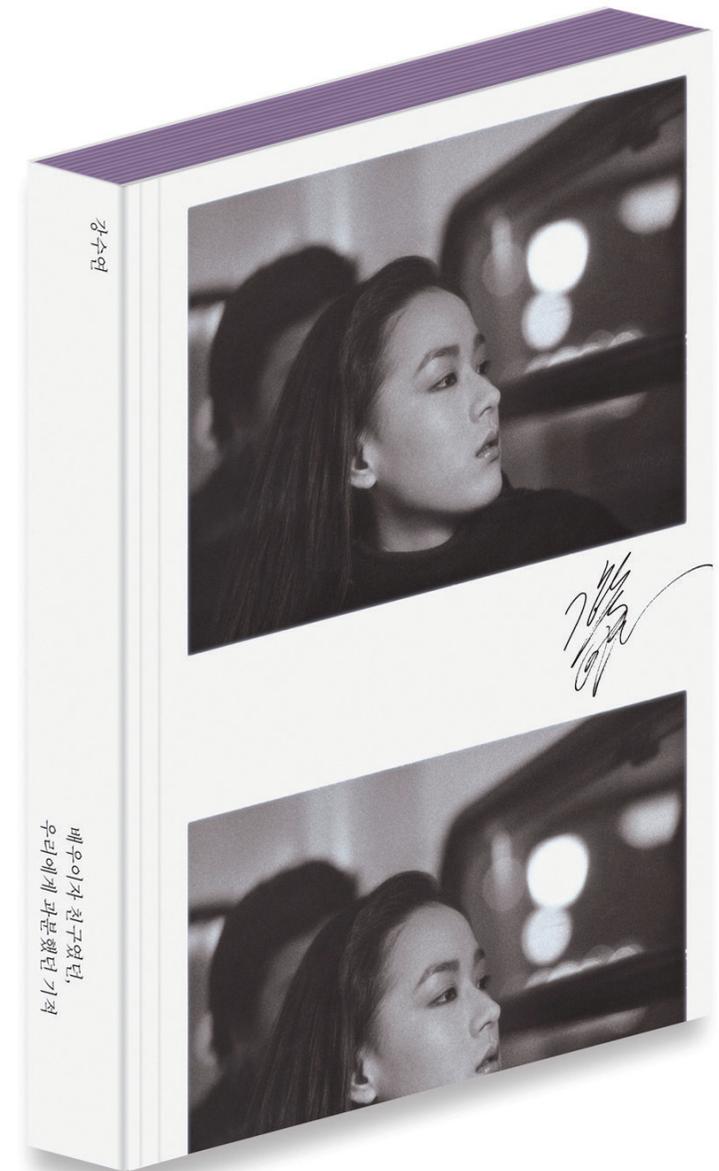
강수연이 떠난 이후 부산영화제를 비롯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국내 각종 영화 행사에서 고인을 호명했다. 그의 삶을 기리고 되새기고는 했다.

1주기를 맞아 지난 2023년 5월 6~9 일에는 추모전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이 열렸다. 7일 오후 개막식에는 유력 영화인들이 집결했다. 연령과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영화 수입 관계자들과 독립영화인들까지 모였다. 영화 담당 기자로 일하면서 여러 영화인들의 죽음을 보도했으나 1주기를 맞아 그렇게 성황을 이룬 행사를 본 적이 없었다. 고인의 생전 인간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

고인의 삶을 기리는 행사를 매년 열자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 고인을 영영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말들이었다. 1주기 추모집 ‘강수연’이 출간되기도 했다. 책의 부제는 ‘배우이자 친구였던, 우리에게 과분했던 기적’이다. 봉준호 감독은 추모집에 담긴 편지에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님 빈소에 도착하던 그 순간, 그저 모든 것이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거든요’라고 썼다.

고인이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을 그만둔 후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던 시절 고인의 근황이 늘 궁금했다. 주요 취재원에 대한 기자로서의 호기심은 아니었다. “말도 없이 언제 해외 연수 다녀왔냐”며 웃으며 타박하던, 누이 같은 이에 대한 안쓰러움 같은 감정이 있었다. 전화를 하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다 그만 둔 적이 몇 번 있었다. 자존심 강한 고인에게 값싼 동정심처럼 비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였다. 취재원과 심리적 거리를 적당히 뒤야 한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작용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정이’ 캐스팅 소식을 들은 후 가벼워진 마음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인은 답 문자를 곧 보냈다.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생전 고인과의 마지막 접촉이었다. ‘좀 더 일찍, 자주 연락할 걸’ 뒤늦은 후회가 있다. 지금도 그의 사진을 보면 문득 마음에 그



강수연 1주기를 맞아 출판된 추모집 '강수연' (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 제공)

늘이 진다. 고인이 천상에서 영화롭고도 영화롭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한국일보 라제기 기자